

宗門의 現場

京畿·華城郡 正南面 諸岐里 典書公派 門中篇

京畿道廳所在地인 水原市는 우리나라 農業의 大本山이니 農作物의 品種改良으로 生産을 增進하며 科學的인 試驗으로 地域의 氣候와 土壤의 厚薄에 비추어 이를 普及하고 獎勵하는 農業試驗場이 있으며 有名한 水原農大는 農業技術者를 養成하고 優秀한 研究要員을 輩出하는 國內最大의 農科大學이 있는 곳이다.

三國時代부터 水原은 軍事上 要衝地요, 交通의 中心地로 많은 史蹟地가 散在해 있으며 高麗朝에는 大都護府로 昇格해서 三都護府와 二郡 七縣의 政治를 總括했고 李朝에서는 留守府를 두어 行宮의 管理에 當하게 하였다.

서울에서 正南으로 八〇里에 位置한 水原은 옛부터 土地가 肥沃하고 海邊이 가까워 農水産物이 豊富한 곳으로 水原府의 題詩에 依하면 高麗末에 三隱中の 한분인 牧隱 李穡先生의 詩에 말하기를

山深松浮煙
海近魚滿盤
村積鰲頭臥
野人頂無冠

〔譯〕 산이 깊으니 소나무는 연기 속에 뜬 것 같고, 바다가가 가까워서 고기반찬이 소반에 가득 차구나 마을의 송아지는 언덕머리에 누웠는데 농부들의 이마에는 것이 없구나, 하였고 또 李朝 世宗朝의 文臣이요, 大學者인 崔崖(과)에 金守溫先生은

來池高閣問誰營
夫我登臨適晚晴
庭下衣冠衛吏集
道傍紅粉教坊迎
千年壁壘興亡久
萬屋桑麻政化清
最恨牧翁曾有記
古笈塵暗字皆平

〔譯〕 연못을 진 높은 누각은 묻나니 누가 지었는가? 내가 등臨한 것이 마침 늦게 비가 왔도다 뜰아래는 의관 갖춘 아전 이 모이고 길가에는 붉게 단장 한 기생들이 영접하느니라, 천 년의 성벽은 흥망성쇠가 오래 되고 일만 가구의 뽕나무와 삼 발을 보니 정치가 태평하구나! 가장 한스럽구나 목은 선생이 일찌기 지은 기문(記文) 있으나 옛원관에 티끌이 끼어 글자마저 분명치 못하구나!

輿地勝覽에 所載된 이러한 詩는 水原의 風景과 平和로운 人心을 나타낸 좋은 名詩들이다. 水原에서 南으로 卽은 國道 三〇五號를 거쳐 天安으로 通하는 이 道路는 交通量이 많은 곳으로 大型貨物車들이 時에 時에 往來하는 妨害를 준다. 餅店을 지나면 市로 昇格된 烏山市로 進入한다. 水原에서 烏山까지 二十分의 距離, 市井格의 霧圍氣는 大端하다. 一〇M가 멀다 하고 드리운 平浪가드, 店舖마다 새로 丹粧한 看板들 모두가 새市民의 矜持속에 陶醉되어 거리는 和氣에 넘칠 따름이다.

烏山에서 發安行 버스는 하루에 一〇餘往復이라 하나 初行의 나그네는 몹시 焦燥하다. 烏山에서 발안행 버스로는 不過 一〇分(約五KM) 거리의 地點이 華城郡 正南面 諸岐里이다. 車嶺山脈의 一지가 陰城에서 北上하면서 東으로 驪州와 利川의 平野地를 形成하고 西로 는 海岸에 接한 곳이라 牧隱先生의 「海近魚滿盤」은 바로 이곳을 말한 것이다.

無老峰을 背景으로 南向한이 에 六·七〇戶의 農家가 平和롭게 보이며 諸岐里는 昔이나 오래된 마을이라는 느낌을 준다. 無老峰을 넘으면 禿山城에 根原을 두고 흐르는 黃口池川은 이곳의 水利에 充足함을 주며 案對의 龜峰山은 展望을 더욱 밝게 한다.

이 諸岐里에 安東金氏가 始居하기는 典書公(諱成牧)의 九代孫인 贈吏曹參判公이 始興郡의 安山地方에서 이곳으로 移住하였으니 約三百餘年前으로 追溯된다.

高麗朝에 工曹典書를 지낸 典書公의 아들인 學堂公(諱休)는 李太祖가 開國하자 忠南 全義로 落鄉하여 雲住山 밑에서 學文의 研究에만 專力하였고, 學堂公의 아들 雲庵(諱益精)公과 正郎公(諱益應)의 兄弟가 모두 文科에 及第하므로 해서 다시 家門을 빛냈다. 學堂公의 第二子 洞은 進士로서 學德이 높았으며 그의 孫子 龜年은 部將으로 贈刑曹參判이며 宗室과 婚姻하니 孝寧大君의 孫女요, 太宗大王의 曾孫女라 五男을 낳으니 第四子의 諱가 師敏으로 文科注書를 지냈고 아들 鍾는 吏曹參議로서 始興郡 安山으로 移居하여 子孫이 이곳에 世居하였다. 參議公의 아들 永鼎은 端川府使로서 善政을 베풀니 府民이 善政碑를 세웠고 아들 繼福은 彦陽郡守를 지냈다.

彦陽公의 五子 중에서 長子 彦忠과 그 아들 尙元은 모두 學德이 高邁하여 生員과 進士試에 合格하였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進士公의 아들 大器는 武科로 食知 中樞府事를 지냈고 그 아들 最는 壽嘉善으로 左承旨에 追贈되었다.

承旨公이 五子를 두었는데 第二子의 諱가 千鑑이라 贈吏曹參判으로 晩年에 이곳 正南面 諸岐里에 始居하여 그 後孫이 繁盛하였고 門戶를 이루어 三百年 내려오는 동안에 百餘世 帶로 늘었다.

吏參公이 이곳에 基地를 定하고 子孫扶植의 터로 삼은 것은 양지바른 村樣과 肥沃한 農地, 그리고 산이 가까우니 燃料의 自給이 容易하다는 점도 있었지만 서울까지는 百餘里로 하룻길이라 아무래도 벼슬길에서 우리라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吏參公이 아들 三兄弟를 두었으니 淡은 通德郎이요 沂는 후손이 없고 源은 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그후로 仕宦한 分을 列舉해 보면 命相 義禁府 承旨·就相(義禁府 都事)·煜(壽嘉善)·樺(義禁府 都事) 등이 있고 進士 在元은 品行이 溫柔和고 學行과 德望이 있어 事實이 學校誌와 郡誌에 登載되어 있고 鴻植은 典衛參奉를 지냈고, 鄉校中興에 功勞가 至大하며 아들 憲鳳은 多年間 正南面長으로 在任中에 二個所의 國民學校를 新築하는 등 善政을 베풀었고 水利組合長으로서 面內의 灌溉事業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여 面民一同의 合意로 正南面 所在地에 功績碑를 세워 서 길에 紀念하고 있다.

諸岐里는 그야말로 門前沃畝을 갖춘 마을이다. 六〇餘町步의 논들이 마을 앞을 가로막아 있고, 水利施設이 完備하여 大早不渴이라 한다. 이제 農地整理가 漸次 進行中에 있어 늦은 감도 있으나 「整地의 必要性이 없어 늦어진 것」이라는 마을사람들의 說明이었다. 밭은 五〇餘町步, 經濟性作物을 栽培하여 그런대로 재물을 보고 있다는 데 오이를 비롯해서 各種 菜蔬類를 適期에 生産해서 烏山, 水原等地와 安養, 서울까지도 搬出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은 어느 農村과 마찬가지로 人力不足이다. 戶籍上 門中戶數는 百餘戶가 된다 하지만 마을 지키는 門戶는 不過 三〇餘戶나 머지는 서울을 비롯해서 水原이나 烏山, 그리고 基他 地方으로 轉出해서 農村의 將來를 걱정하게 된다.

마을앞을 통과하는 烏山-發安間 道路 건너편은 平澤郡에 속한다는 諸岐里는 華城郡에서 도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이곳에도 低廉한 土價의 탓인지? 道路邊의 丘陵地帶에는 中小企業들이 進入하여 一〇餘 會社가 工場을 建立하고 건너편 平澤區域에도 적지 않은 工場이 들어서면서부터 빈방이 없을만치 人口와 世帶數가 늘어나고 있으나 外來人의 轉入으로 혹여나 마을 인심에 變化가 일어날까 하는 念慮 또한 저지될수 없다는 것이 마을의 걱정이라 한다.

農村의 靑年들이 都市로 進出하는 것은 時代의 趨勢며 急長하는 工業伸長의 影響인지 모

圓融自在

己巳歲首 朴祥用

金本伊勢田診療所
所長 金泰恒
(都評議公派)
日本・京都府宇治伊勢田町砂田 144-2
電話：(0775) 20-3653
20-3727

國心天心順 友清武自安
妻吳夫福少 子孝父心寬
己巳新春 陽村金泰會

前・永同郡守 朴祥用
新年祝賀 揮毫

서울·城北區 長位洞 68-242

隨 聞 隨 錄

서울 城東區 紫陽洞
翼元公派 在 冕

*공중도덕과 질서의식

날로 인구가 늘고 산업의 발달로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 되는 것은 공중 도덕심과 질서 의식일 것이다. 더구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휴일을 즐기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중 도덕심은 선진국과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생활 수준이나 고속도로 수준에도 훨씬 못미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휴일만 되면 몸살을 앓는 산과, 들과, 도로가, 이번(추석) 연휴 동안에는 정말 더이상 못참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올해 추석(1987년) 연휴는 특히 길었음으로 귀향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마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함께 자연히 산과 들을 찾곤 했다.

그런데 나는 그 폭발할 것 같은 무질서 속에서 실로 본받을만한 장한 장면을 목격 하였다.

치악산에서 한 젊은 부부가 삼사세 쯤으로 보이는 어린 아기에게 그 복잡한 가운데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 아기는 제손에 쥔 종이를 휴지통에 버리더니 다시 주변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들을 주워다가 휴지통에 넣는 것이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 주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거창한 질문에 대한 쉽고 명쾌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그 젊은 부부와 어린이의 모습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았으며 보람있고 흡족할 연휴를 보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잠시였다. 연휴가 긴 탓일 것이다.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만 있다면 더할말 나위도 없겠지만 아직도 농촌에는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국민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았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나무라지 않으나 그 도가 지나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역겨움보다도 눈살이 후끈할 정도였다.

예컨대, 추석 명절 철이지만 휴식도 못하고 농촌에서는 수확철을 맞아 농부들은 눈코 뜰 사이도 없이 남녀 노약자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옆 나무 그늘에서는 40대의 멋쟁이 남녀가 만취해서 고성 방가로 춤을 추며 뒤엉켜 세상에 나 하나 밖에 모르는 몰염치한 광경을 보였다.

알고보니 그도 그럴 것이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몇 년만에 고향에 와서 만나게 된 중견층 선남선녀 동창생들이란다.

함께 땀을 흘리자는 말은 아니며, 또 도시 사람들로 일년내내 열심히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했으니 모처럼만의 호기회에 서로가 유흥도 필요하다고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의식하고 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공중 도덕심과 질서 의식은 아직 고속도로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레저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휴가의 필요성이 절실해져야 할 텐데 국민 의식이 이 정도 밖에 없으니 큰 걱정이다.

*복받기만 기도하는 신앙자세 버려야

여성과 종교 사이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엄청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변사자 32명중 28명이 여성이고 또 이를 주도한 인물 역시 여성이라는 사실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말세론을 앞세운 박순자 사장에 현혹돼 엄청난 액수의 사재를 모아다 바친 신도들의 대다수가 가정을 가진 30~40대의 여성이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신앙 생활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신도가 더 많다. 신앙 생활의 내용 측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독실하고 또 맹신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생활 철학이라고 할 유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의 경우 여성 신도는 남성 신도의 약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대양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의 신앙 생활의 특성 및 바람직한 신앙 생활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종교와 가까운데 대해 윤이훈(尹以勳) 서울대교수는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피동적 운명관과 의존적 자세를 갖도록 은연중 교육되는데 다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 참여를 배제함에 따라 심리적 좌절감을 느껴 쉽게 종교에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쉽게 절대이념 체계에 빠지게 되고, 교리를 이성적 판단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남편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적 도움없이도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여성들은 심한 상실감과 위기의식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종교에의 귀의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신앙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많은 사람들이 맹신적인 「신앙을 위한 신앙」에 빠져드는데 다분히 감성적, 감각적인 여성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은 교리의 참된 의미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쉽고, 교리도 종은 면으로만 해석하려 하며 무조건 죄인 인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혼란하고 기성 교단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일수록 신흥종교 및 사이비 종교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종교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여성이나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상실감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포교하는 예가 많다고 지적된다.

더우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사머니즘에서 비롯된 기복성(祈禱性)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현실 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는 여성들의 경우 이런 기복성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여성들의 신앙생활이 감성적이며 편협한 형태로 추구되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형태로서 「종교의 합리적 측면과 신비적 측면을 조화시키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자신의 종교만 옳고 나머지는 다 그르다」는 편협된 종교관, 사회의 전통이나 기본적 윤리관과 배치되는 교리를 강요하는 신앙생활은 자신은 물론 가족, 사회, 모두를 불행하게 파멸시킨다고 강조하고 싶다.

*전대미문의 집단자살한 종교인들

신흥종교나 유사종교가 이따금 물의를 일으켜 지상에 오르내릴 때마다 도대체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나 여기에 끌려다니는 무리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가 하며 마치 외계인이나 보는 것처럼 신기해 한다.

집을 나간 청소년들이 검판이나 막노동으로 어렵게 번돈을 몽땅 받친다던지, 전 재산을 털어놓고 종살이나 다름없는 집단생활을 한다던지 심지어 주부나 처녀들이 허황한 교리에 속아 신세를 망친 일들은 기존 윤리도덕의 척도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1987. 9.) 말세를 빚은 오대양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착실한 가정주부였다는 박순자 여인이 느닷없이 덕망높은 사회사업가였다 모범 기업인였다 한술 더 떠서 유사종교집단의 교주로 탈바꿈하고 급기야 전대미문의 집단 자살사건을 일으켜 세계를 경악케 한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집단을 주동적으로 만든 몇몇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외계인도 아니고, 다른 인종도 아닌 바로 우리자신, 혹은 우리 이웃들을 유괴해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네 보통 사람들보다 선량하고 신앙에 대한 향심도 깊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나 허황된 교리나 유혹에 빠져 어찌다가 일생을 망치고 이웃들을 경악케 만든 것은 교회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지 못한 원인일 것이다.

교회란 건강하고 유복하고 돈있는 사람만 다니는 곳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물정에 어둡고 병약한 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말로만 약한 자를 위한 교회이지 실제로는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권력자에 아부하고 헌금의 액수에 연연하는 교회라면 나약하고 가난한 신자들은 발길을 돌릴 것이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신도들을 끌어내는 것이 유사종교가 세를 뻗치는 공통적인 수법임을 우리는 다같이 명심해야 한다.

清州市司法書士合同事務所

會長 金章會 (按廉使公派)

事務長 金泰恒 (按廉使公派)

事務所: 清州市 南門路1街 1-6

電話: 淸州 3-7341 · 53-7868
55-3034

貳拾萬圓 典書公派 在泰文
拾萬圓 按廉使公派 章
拾萬圓 按廉使公派 元
五拾萬圓 郡事公派陽川宗親會 代表 鏞

獎學金寄託人

壹萬圓	壹萬圓	壹萬圓	壹萬圓	壹萬圓	壹萬圓	貳萬圓	五萬圓	五萬圓
提學公派	翼元公派	大護軍公派	都評議公派	都評議公派	提學公派	按廉使公派	都評議公派	翼元公派
判大敦元	在浩三	泰榮泰	俊	默				
吉石會	會冕道	奎福洙	恒	默				
(咸陽)	(南陽州)	(寶城)	(義城)	(紫陽洞)	(新沙洞)	(楊平洞)	(瑞草洞)	(長位洞)

贊助人名單



碩士學位論文

金方慶研究

清州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相哲

● 略 歷 ●

- 1953年生
- 1981年 清州大學 歷史教育과 졸업
- 1986. 8 清州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업
- 현 清州신흥고등학교 교사.

人德 3년에 本國의 無賴한 무리가 장차 亂을 짓고자 하는데…… 金忻 등이 먼저 그 謀議를 알고 능히 亂을 바로잡은 바가 있음에 그 功을 可히 賞함직하니 마땅히 別錄하여 敍用할 것이다.

라 하여 忠烈王 25년 忠宣王에 가담하였던 金忻은 높이 평가하였다. 또 忠宣王은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家門으로 宰相之宗을 지정하였는데 金方慶의 家門인 安東 金氏는 宰相之宗에서 탈락되었다. 이것은 忠宣王에 가담하였던 金忻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쇠퇴를 완전히 만회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忠宣王이 즉위하여 정치적 세력을 만회해가던 金忻은 그 이듬해 忠宣王 元年(1309) 59세의 나이로 죽음으로서 金方慶이 활약하던 당시와 같이 세력있는 家門으로까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1. 三男 金恂과 그 아들

金恂(高宗 45년 1258~忠肅王 8년 1321)은 忠烈王 5년(1219)에 登第하였고, 金方慶이 日本 遠征때 金恂이 從軍하고자 하였으나 金方慶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물러 배에 올라 從軍하고 돌아오자 殿中侍史를 加하였다.¹⁷⁴⁾ 그뒤 忠烈王 23년(1297)에 左副承旨가 되었으며,¹⁷⁵⁾ 忠烈王 24년(1298) 忠宣王이 즉위하여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하고 5월에 敎書를 발표하여 宰相의 수가 옛날보다 많아 불필요한 官職은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40여명을 새로 임명하였는데 金恂은 光政副使 承旨 成均祭酒가 되었다.¹⁷⁶⁾ 7월에는 元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관제를 다시 고쳐 30여명을 새로 임명할 때 金恂은 右承旨 成均祭酒 寶文閣學士 知民曹事가 되었으며¹⁷⁷⁾ 8월 忠宣王이 퇴위하기 직전 三司左使가 되었다.¹⁷⁸⁾ 다시 忠烈王이 복위한 뒤 9월에 左承旨가 되었으며¹⁷⁹⁾ 11월에는 密直副使가 되었으나 사직하였다.¹⁸⁰⁾ 그러나 忠烈王이 34년 昇遐하고 忠宣王이 즉위하자 忠宣王은 다시 그를 起用하여 重大匡 上洛君으로 삼았다.¹⁸¹⁾ 이렇게 金恂은 忠烈王과 忠宣王의 不和가 표면화되던 忠烈王 24년~25년 사이에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런데 그도 형과 같이 忠宣王편에 가까운 것 같았으나 그의 형 金忻과는 달리 무난히 이 시기를 넘겼다. 그뒤 忠肅王 8년 정월에 判三司事가 되었으나 同年 8월에 죽었다.¹⁸²⁾

金恂의 長男 金永暉¹⁸³⁾ (~忠穆王 4년 1348)은 忠烈王 末에 登第하여 처음으로 江陵府錄事에 임명되고 藩王과 忠惠王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藩王黨의 曹頤이 亂을 일으켰을 때 忠惠王을 侍從한 功으로 忠惠王 後3年(1342) 1等功臣으로 封해졌다.¹⁸⁴⁾ 이렇게 忠惠王편에 가담하여 승리함으로써 정치적 세력을 쌓아가고 있을 때 忠惠王은 그 이듬해 4년(1343) 元에 잡혀갔다. 이때 高麗에서는 王의 死를 勇서하여 줄것을 元에 청하고자 하였는데 의견이 서로 다르자 金永暉는 「王辱臣死 請之宜急」이라 하여 忠惠王을 도울고자 하였으나 忠惠王은 이듬해 정월 元나라에서 귀양길에 죽고 말았던 것이다.¹⁸⁵⁾ 그의 忠惠王 勇호는 효과는 없었으나 臣下로서의 도리는 다한 것이 아닌가 한다. 뒤에 金永暉는 忠穆王 2년(1346) 贊成事가 되었으며¹⁸⁶⁾ 3년에 左政丞으로서 諸道의 量田을 行하던 整治都監의 判事가 되어 元의 奇皇后의 進척동생 奇三萬을 제거하기도 하는 등¹⁸⁷⁾ 기울어가는 國運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金恂의 二男 金永暉는 이름만 알수 있고 그의 활동상황은 전혀 알수 없다.

金恂의 三男 金永熙(忠烈王 18년 1292~恭愍王 10년 1361)는 忠肅王때 三司右尹에 이르렀으며, 曹頤이 亂을 일으켰을 때 忠惠王을 侍從한 功으로 忠惠王 後3年(1342) 1等功臣으로 封해지고 三司左使를 除授받았다.¹⁸⁸⁾ 그뒤 忠惠王 後4年 元 사신이 忠惠王을 잡아 갈때 百官이 다 도망하여 숨었는데 金永熙는 王을 호위하다 창에 찔려죽었다.¹⁸⁹⁾ 그뒤 忠穆王이 즉위하여 金永熙를 贊成事로 삼았으며,¹⁹⁰⁾ 忠穆王 元年(1345) 정월 政房을 다시 설치하고 金永熙 등을 提調官(事務管掌의 官職)으로 삼아¹⁹¹⁾ 人事 行政을 담당하였고, 이어 左政丞을 거쳐 右政丞까지 올랐다.¹⁹²⁾ 이와 같이 忠惠王, 忠穆王代에 걸쳐 金恂의 아들(永暉, 永熙)은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金方慶은 二男을 두어 그의 子孫들도 크게 번창하였으나, 二男 金忻이 忠烈王과 忠宣王 사이에 父子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忠宣王편에 가담하여 金方慶 家門에 일찍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子孫들은 藩王 晏와 忠惠王사이 왕위계승 문제가 발생했을 때 忠惠王편에 가담하여 다시 세력을 만회하게 되었다. 특히 曹頤이 亂을 일으켰을 때 王을 侍從한 功으로 그의 孫子 5명중 2명은 1等功臣, 1명은 2等功臣으로 封해졌으며 뒷날 모두 宰相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다. 金方慶 子孫들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은 이 집안을 뒷날까지도 드날리게 만들었으니 결혼 관계¹⁹³⁾를 보아도 알 수 있다.

金方慶의 二男 金忻의 딸은 趙璉에게 출가하였다. 趙璉은 趙仁規의 二男이다. 趙仁規는 蒙古語 通譯官으로 出世하여 크게 활약했던 사람으로 이 家門은 宰相之宗 가운데 끼게 되었다.¹⁹⁴⁾ 三男 金恂의 부인은 許珙의 딸인데 孔巖 許氏는 許珙에 의하여 크게 떨쳐 有力한 家門으로 대두하였다. 許珙의 진출과 그 子孫들의 번창을 통하여 孔巖 許氏 宰相之宗이 되었다.¹⁹⁵⁾ 이렇게 金方慶 子孫들은 宰相之宗의 家門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註 174) 高柄翹 「麗代征東行省의 研究(下)」 〈歷史學報〉 19집 P. 137

註 175) 〈高麗史〉 世家 卷33 忠宣王 즉위年 11月 辛卯條 「人德 三年 本國無賴之徒 將欲構亂…… 金忻等 先知其謀 有能整亂其功 可賞宜別錄敍用」

註 176) 〈上揭書〉 列傳 卷17 金方慶傳

註 177) 〈上揭書〉 世家 卷31 忠烈王 23年 12月 壬寅條

註 178) 〈上揭書〉 世家 卷33 忠宣王 즉위年 5月 辛卯條

註 179) 〈上揭書〉 同年 7月 戊戌條

註 180) 〈上揭書〉 同年 8月 甲子條

註 181) 〈上揭書〉 世家 卷31 忠烈王 24年 9月 丙申條

註 182) 〈上揭書〉 同年 11月 庚戌條

註 183) 〈上揭書〉 世家 卷34 忠宣王 4年 6月 壬辰條

註 184) 〈上揭書〉 世家 卷35 忠肅王 8年 8月 壬戌條

註 185) 〈高麗史節要〉 卷25 忠惠王 後3年 6月, 4年 12月, 5年 4月條에 등장하는 金永暉는 金永暉임에 틀림없다.

忠惠王 後3年 6月앞서 曹頤의 亂때 王을 侍從한 功으로 功臣을 封하는데 〈高麗史〉 世家 卷36 忠惠王 後3年 6月 庚子條에는 「上洛府院君 金永暉」라 하였으며 〈高麗史節要〉에는 「上洛府院君 金永暉」로 되어 있다.

또 忠惠王 4年 王이 元使에 의해 잡혀갔을 때 〈高麗史〉 金方慶傳에는 「永暉曰 王辱臣死請之宜急」라 했고, 〈高麗史節要〉에는 「上洛君 金永暉曰 王辱臣死救之宜急」라 하였다. 따라서 〈高麗史節要〉에 忠惠王때까지 등장하는 金永暉는 곧 金永暉이다. 〈高麗史節要〉에도 그 이후에도 金永暉로 나타난다.

註 186) 註 156, 185 참조

註 187) 〈高麗史節要〉 卷25 忠惠王 5年 春正月條

註 188) 〈高麗史〉 世家 卷37 忠穆王 2年 9月 甲申條

註 189) 〈高麗史節要〉 卷25 忠穆王 3年 3月條

註 190) 〈高麗史〉 列傳 卷17 金方慶傳

註 191) 〈上揭書〉 世家 卷36 忠惠王 後4年 11月 甲申條

註 192) 〈上揭書〉 世家 卷37 忠穆王 즉위年 冬 11月 甲子條

註 193) 〈上揭書〉 世家 卷37 忠穆王 元年 春正月 丁未條

註 194) 〈上揭書〉 同年 4月 丁卯條, 12月 乙丑條

宗旗圖案懸賞募集 마감期日延長

지난 10月號에 公告한 本件에 대하여 各處 宗人으로부터 많은 應募가 있었으나 더욱 참신하고 뜻깊은 優秀作을 發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마감期日을 延長합니다

다 음

延長期日: 1989年 3月 30日
發 表: 本報 4日號

提學公派

金 三奎

서울·永登浦區 楊平洞四街 五五

都評議公派

金 浩道

서울·江西區 新沙洞五九一七

翼元公派

金 在冕

서울·城東區 紫陽洞六九五 函양아파트五棟 〇五號

점주중앙새마을금고

理事長 金 渭萬

義城郡 點谷面 西邊里 (都評議公派)

大護軍公派

金 敦會

寶城郡 得穆面 三亭里

翼元公派

金 大石

南楊州郡 洪金邑 陶農里 동원아파트二〇八美



(전호에서 계속)
원종(元宗)의 표문에 세조는 잠시동안 민정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도당(都堂)을 통해 군사의 월경(越境) 만을 금지시키고 전후군(殿後軍)의 파송문제는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만 서경에서 남(南)으로 더 진출하지 못한 것은 오직 김방경이 서경에서 '몽가독'의 부대는 절대로 대동강을 넘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며 원종은 서경에 와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방경이 몽가독의 부대로 하여금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저지하고 있었음은 오직 세조의 조령(詔令)에 의한 차사이었다.

그리고二月十二일에 세조는 원종에게 금선주사(金線走絲)와 채단(彩段) 백필, 그리고 또 네필의 말과 많은 화살들을 하사하고는 동경행성(東京行省)에 주둔하고 있는 국왕두련가(豆撚哥)로 하여금 국사를 거느리고 원종을 호위하여 고려로 돌아가라 하였다. 그러나 원종은 때를 얻지 못하여 임종(臨終)한 이라 도저히 면밀을 떠날수 없기에 연경에서 서십여일이나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가三月十一일에 와서 겨우 귀국의 길에 올랐다. 물론 여기에는 두련가의 대부대가 전후군(殿後軍)으로 원종의 전우좌우를 호위하면서 따라왔으며, 이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義州)에도 도착한 날이四月二十八일이었고 五월 초순에 겨우 서경(平壤)에 도착하였다.

한편 강도에 머물고 있는 임연은 삼별초(三別抄)의 막강한 군대의 통솔권을 손아귀에 잡고 국왕도 함부로 갈아 치우는 포악한 고려의 실권자로서 몽고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마치 배중(背藏)의 낙인이 찍힌 자이었다. 이러한 임연에게 큰 충격을 준것은 몽가독의 二천 병력이 서경에 주둔하고 서북방의 六십여성이 몽고의 직할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며, 임연에게는 나라의 사정보다 자기 자신의 신분보전 문제가 더욱 급박한 현안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자비령(慈悲嶺)을 경계로 북부지대는 이미 몽고의 직할지로 되어 서경은 동녕부(東寧府)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를 알게된 원종은 연경(燕京)보다 구로부터 들은 말이 과연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경의 거리에는 몽가독의 병정들이 서성거리고 고려사람의 거동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임연은 삼별초의 지유(指諭)지 보대(智甫大)에게 명령하되 밤중에 야음(夜陰)을 이용해 서군대(三別抄)를 거느리고 황주(黃州)에 주둔하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삼별초의 신의관(神儀軍)으로 하여금 초도(椒島)에 머물게 명하였다.

몽가독이 몽고로부터 받은 직책은 안무고려사(按無高麗使)로서 이는 몽고직할지에서 통치의 권력을 잡고 있었으나 다

강도(江都)에는 삼별초의 남

개인 신위군이 있었으니 이들은 몽고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된 자와, 또 일부는 몽고에 사로잡혀 있다가 도망친 자들로 평성(平城) 삼별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예부대일 뿐 아니라 몽고에 대해서는 가장 적개심을 품고 있는 집단이었다. 보니 자연히 임연에게 예속되고, 임연은 임연대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실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단(崔坦)과 한신(韓愼) 같은 반역자의 구실(口實)을 만들기도 하였다.

에 고려의 전국토를 몽고에 팔아넘기는 결정적인 계획이었고, 한편으로는 몽가독 역시 몽로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는 절호(絶好)의 기회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때 최단의 집안을 경비하는 영원별장(寧遠別將) 오계부(繼夫)의 아들 오득공(吳得公)은 심상치 않은 동태를 탐지하기 위해서 주야로 지키다가 최단과 몽가독의 밀계(密計)를 자세히 포착하고 밤을 이용하여 담을 뛰어넘어 김방경을 찾아 이 사실을 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김방경은 두공에게 반문하였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가?」 「예, 만약에 소인의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 은밀히 탐정하심이 좋을 까 합니다.」 「내 어찌 그대의 말을 믿지 않겠는가?... 대관절 그날 짜는 언제라든가?」 「예, 바로 내일인 줄 아옵시다.」

「알았으니 그대는 돌아가서 태연한 태도로 있으라」 두공이 돌아간 후에 김방경은 「내 기어히 이러한 용계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국내의 환란이 없게 하리라」고 마음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몽가독의 군문에 나타난 고려의 장군이 있었다. 관원의 안팎에는 이 미수 많은 군인들이 정렬해 있고, 최단과 한신도 호탕한 웃음으로 아침공기를 흔들면서 대열의 사이를 활기차게 쏘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이를 누르고 고려의 무장(武將)은 몽가독의 거실(居室) 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었다.

「오호! 오대간만에 귀한 손님이 오시니 구려, 김상공(金相公)이 이 어찌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오랫동안 깨지머 머물면서 무료하게 세월만 보내다가 오늘 은 사냥으로 하루를 즐길까 하는 중인데 마침 상공께서 오시니 오늘의 사냥은 더욱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소. 자 같이 가슴이 어떠하시오?」 몽가독의 이러한 환영의 말을 들은 고려 무장 김방경은 이미 예기한 바를 생각하고 「뭐? 사냥을 가신다고? 그 참으로 재미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사냥은 어느 방면으로 가시려 하오?」 「여기서 일단 대동강을 건너면 황주(黃州)에 가게 되고, 또 봉주(鳳州)에 이른다면 그곳에 가서 아마 초도(椒島)까지 갈것 같소」 이 말을 들은 김방경은 안색을 붉혔다. 「아니! 그대 무슨 말씀이오. 관원은 도대체 정신이 있소? 없소? 황제폐하께서 유시하시기를 「만약에 관원이 대동강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를 벌주라」 하신 일은 관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찌 해서 하필이면 제명(帝命)을 어기면서 그곳을 뚫려 하오?」

이 말을 들은 몽가독은 한참 동안 담뱃을 못하다가 변명조의 입을 열었다. 「우리 몽고 사람이 사냥으로 생업을 삼고 있는 줄은 황제께서도 이미 아시는 일인데 그대가 어찌해서 이를 막으려 하시오?」 「아니! 내가 언제 사냥을 못하게 막았던 말이오. 내가 한 말은 지엄하신 황제 폐하의 유시에 어긋난 생길까 두려워서 대동강을 못 넘게 했을 따름이오.」 「만약에 황제께서 대동강을 건너간 일로 문죄(問罪)를 하신다면 그 죄는 이 몽가독 혼자서 당할 것인데 그대가 무슨 상관이 있소?」 「이 김방경이 서경에 있는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동강은 건너지 못할 것이오. 그래도 기어히 그 방면을 뚫혀서나 하면 황제 폐하의 순화를 받은 연후에 다시 결정하시오.」 김방경은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를 막으려 하자, 몽가독은 다시 변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의 치밀한 계략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서 김방경은 그날로 지보대(智甫大)를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임연의 군사를 물러가게」 하였는데 몽가독은 그 측근자에게 「김방경은 과연 충직함이 하늘에서 타고난 성품이라」하면서 크게 감탄하고 더욱 존경하였다. 또 몽가독은 그후로 김방경을 두려워하면서 과연 믿을수 있는 인물로 보게 되었다. 그후에 몽가독은 김방경과 은밀히 얹은 자리에 서 「왕정을 멸망시키려는 무리는 비단 최단의 일당만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소」 하는 몽가독의 일갈에는 「이제부터 반역의 무리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또 누구란 말이오?」 김방경이 이렇게 묻는 말에 몽가독은 「모모(모)의 인사들이 내심을 품고 있으면서 왕도를 침해하지 못하고 또 최단의 무리도 우물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김상공이 있는 힘이지」 이 자리에서 몽가독은 자신의 신정에는 한점의 호르몬도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였다. 「그 일이라면 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오」 김방경은 이렇게만 말하면서 그 길다란 고개만 건너하였다.

한편 강도에 머물고 있는 임연은 삼별초(三別抄)의 막강한 군대의 통솔권을 손아귀에 잡고 국왕도 함부로 갈아 치우는 포악한 고려의 실권자로서 몽고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마치 배중(背藏)의 낙인이 찍힌 자이었다. 이러한 임연에게 큰 충격을 준것은 몽가독의 二천 병력이 서경에 주둔하고 서북방의 六십여성이 몽고의 직할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며, 임연에게는 나라의 사정보다 자기 자신의 신분보전 문제가 더욱 급박한 현안에 처하게 되었다.

임연은 삼별초의 지유(指諭)지 보대(智甫大)에게 명령하되 밤중에 야음(夜陰)을 이용해 서군대(三別抄)를 거느리고 황주(黃州)에 주둔하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삼별초의 신의관(神儀軍)으로 하여금 초도(椒島)에 머물게 명하였다.

몽가독이 몽고로부터 받은 직책은 안무고려사(按無高麗使)로서 이는 몽고직할지에서 통치의 권력을 잡고 있었으나 다

강도(江都)에는 삼별초의 남

• 各種生花
• 꽃바구니
• 화환 · 화분

꽃

• 신속한 배달
• 저렴한 가격
• 宗親을 위한 特別奉仕

香田園芸

代表 金在均

주소 :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 783-3166 ~ 7 (自) 552-5327